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1차 정기이사회 회의

□ 회의일시 : 2025. 1. 7.(화) 14:06

□ 회의장소 : 방송문화진흥회 회의실

□ 참석이사 : 권태선 이 사 장  
강중묵 이 사  
김기중 이 사  
김병철 이 사  
김석환 이 사  
박선아 이 사  
윤능호 이 사  
차기환 이 사 (8명)

□ 불참이사 : 지성우 이 사 (1명)

---

## 제1차 정기이사회 회의 속기록

---

【14시 06분 개회】

### 1. 성원 보고

○ 의장

- 간사는 성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 재적이사 아홉 분 중 지성우 이사를 제외한 여덟 분과 감사님이 참석하셔서 2025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가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개회 선언

○ 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3. 경과 및 동정 보고

○ 의장

- 간사로부터 “경과 및 동정” 보고를 들겠습니다.

○ 간사

- 먼저 사무처 업무보고입니다. 현재 국회 과방위 상임위에 10건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세부 주요내용은 별첨자료를 준비했으니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MBC저널리즘스쿨 4기 장학생 29명에 대한 선발이 완료됐고, 2월 18일 저널리즘스쿨 개원 예정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조기복직 관련 인사위원회가 지난 12월 23일 개최해서 인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해당 직원과의 복직일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복직일은 3월 1일자로 복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MBC 관련 동정입니다. 11월 누적 경영 실적입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3억 증가한 6,642억 그리고 영업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69억 증가한 6,512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94억 증가한 129억 영업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1월 1주차 핵심시간대 가구시청률은 4.9%로, 지상파 4개 채널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49시청률 상위 20개 프로그램에 MBC가 <나 혼자 산다>와 <뉴스데스크> 등 5개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메인뉴스 시청률은 주중 9.6%, 주말 9.8%입니다. 그리고 MBC 사내독립사업공모 1차 평가 선발 결과 총 9개 팀이 선정됐습니다. 다음은 방송계 동정입니다. KBS 수신료 통합징수와 관련한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방통위에서 2024년도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보류 이유는 1인 체제로는 심의·의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심사를 보류했고, 위원회 구성 완료 시 재허가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임원 향후 일정입니다. 1월 21일 화요일 제2차 정기이사회, 그리고 22일 수요일 제1차 임시이사회가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양일에 걸쳐서 MBC 상반기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 김기중 이사

- 앞으로 가기로 하지 않고 뒤로 가기로 했습니까?

○ 강중목 이사

- 그때 뒤로 가기로 했습니다.

○ 의장

- 23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 김석환 이사

- 화·수에 하기로 했습니다.

○ 김기중 이사

- 알겠습니다.

○ 의장

- 그때 21일이 누가 안 되는 분이 계셔서.

○ 간사

- 2월 18일 화요일 오후 2시 제3차 정기이사회 그리고 3월 4일 오후 2시 제4차 정기이사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경과 및 동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 경과 및 동정 보고 관련해서 혹시 이사님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사 있음) 부연 설명 하나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육아휴직 조기복직 심사하고 해당 직원 과 협의 완료됐는데 육아휴직 관련한 우리 규정이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지금처럼 육아휴직을 냈던 사람이 중간에 조기복직을 신청했을 경우에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을 규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들도 있으셨다고 해서 추후에 이것을 규

정개정 소위에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제가 올해 신년이 되면서 이사님들에게 신년인사를 문자로라도 보냈어야 되는데 못 보냈던 것은 사실 연말에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 인사드리기도 면구스러운 마음이 들었었는데, 무안에서 사망하신 분 중에 목포MBC PD가 한 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가가 마련돼서 어제 사무처장과 조문을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그 PD의 아버님이 또 목포MBC에서 2023년까지 PD로 근무하셨던 분이시더라고요. 부인은 또 광주KBS 기자여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던데, 지금 안윤석 PD가 저희가 지원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올해 12월까지 5편을 방영한 모양입니다. <공존의 해법>이라는 이주노동자들을 다룬 문제….

○ 강중목 이사

- 방문진에서 지원했지요?

○ 의장

- 예, 저희가 지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것을 최종 마무리한다고 원래 예정은 휴가를 더 길게 냈었는데 당겨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던데, 그래서 이 안윤석 PD 작품이 1월 14일 날, 물론 목포MBC 쪽에서 방영하겠지만 마지막 6부작 작품을 방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님들도 관심 갖고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아까 임원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 통상 저희가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월·화로 하거나 화·수로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화·수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수요일 날이 방송통신 기관들의 신년 하례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형준 사장이 거기에 참석해야 하는데 5시에 끝난다고 합니다. 22일 수요일 날 우리가 업무보고가 끝나면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장이 총평을 들어야 하는데 이사님들이 양해하시면 부사장이 총평을 듣고 사장은 거기에 통상적으로 해마다 참석했던 것이니까 가라고 해줘도 되고, 아니면 이사님들이 “그것은 안 된다. 여기 와서 총평을 들어라”라고 하면 와서 들으라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차기환 이사

- 과거처럼 하시지요.

○ 의장

- ‘과거처럼’이 2가지 다 과거처럼입니다.

○ 차기환 이사

- 그래도 총평할 때 자주 오는 것도 아닌데 사장이 와서 총평 듣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 윤능호 이사

- 그런데 총평이 큰 것은 없지 않습니까?

○ 차기환 이사

- 그래도 그때 아니면 언제 이사장님이 불러서 임원들과 이야기하겠습니까?

○ 의장

- 그러면 총평 들을 때 사장이 그래도 참석하는 것이….

○ 강중목 이사

- 5시면 몇 시에 끝나는지 모릅니까?

○ 윤능호 이사

- 조금 늦춰서 그쪽 시간을 맞춰 주지요.

○ 의장

- 그러면 우리가 1시간 정도 늦춰서 해서 6시까지 오라고 할까요? (“예” 하는 이사 있음)  
그러면 그날 회의를 오후 3시쯤 시작하지요. 그러면 거기에 갔다가 여기 오면 되니까요.

○ 강중목 이사

- 그동안 했던 것을 이사장님이 전체 다 종합해서 하는 것으로 제일 중요한 일이니까 오시라고 하고 우리가 회의를 1시간 늦추지요.

○ 의장

- 그러면 1월 22일 수요일 회의는 오후 3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과 및 동정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방문진법 개정안 관련해서 이것이 민주당에서 이렇게 수많은 안이 나왔는데 이사님들 한번 살펴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방문진 이사님들끼리 한번 민주당 안은 치지도외하고 방문진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필요하면 논의 한번 해볼까요? 관둘까요?

○ 차기환 이사

- 그것은 안 하시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자기 것을 한다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의장

- 그렇긴 한데 방문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법을 만드니까 그 법들이 계속 문제를 야기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해서 국회 입법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사님들이 별로 내키지 않으시면 관두지요.

○ 윤능호 이사

- 개정안의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의장

- 지금 각자 내서 아마 민주당에서는 조정해서 하나의 단일안을 만들어서 올린다고 합니다.

○ 강중목 이사

- 그러면 국회의장이 제안한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까?

○ 의장

- 그것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데 여야에서 아무도 추천하지 않아서 전문가들만 참여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 강중목 이사

- 이사장님, 우리의 입장을 혹시 전달할 것이 있으면 전달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 의장

- 방문진이 이 법안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는지 물어보느라고 저희에게 의견조회가 온 것 입니다. 이 10건 다 왔는데 사무처에서 그것에 대해서...

○ 윤능호 이사

- 이것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 의장

- 각 의원실에서 왔는데,

○ 강중목 이사

- 발의자들별로 다 왔다는 것입니까?

○ 의장

- 예, 모든 것이 다 왔는데 우리가 뭐라고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예전에도 방문진법 개정안이 나와서 우리에게 의견을 물어보면 일단 "의견 없음"으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의견을 정치 하게 달려면 위원님들과 다 의논해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의견 없음"으로 보냈는데 혹시라도 정말 확정된 최종안들이 여야에서 나올 때쯤 되면 방문진 이사회에서 논의해서 의견을 내야 방문진법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이사님들과 의논해서 해야겠지요.

○ 윤능호 이사

- 이 사람들 확정되면 공청회를 개최합니까?

○ 의장

-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 강중목 이사

- 저번에 한 번 통과시켜서 거부권을 행사했지요. 그때는 공청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 윤능호 이사

- 안에 대해서 확정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좁혀지면….

○ 의장

- 공청회를 해서 다시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것이 어떻게 일정이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 윤능호 이사

- 지금은 저희가 하지 않고 나중에 듣고 하시지요.

○ 의장

- 나중에 이사님들이 판단해서….

○ 간사

- 현재 단계는 상임위에 의안이 접수된 상황이고 여기에서 심사부터 해서 쪽 단계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상임위에 의안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심사진행 단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 윤능호 이사

- 복잡한데 우리 의견까지 거기에 첨부하면 아직은….

○ 의장

- 더 질문이나 의견이 없으시면 경과 및 동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4. 업무 보고

##### 1) MBC 이사회 결의사항 보고

○ 의장

- “MBC 이사회 결의사항 보고”입니다.

##### (박건식 MBC 기획본부장 입장)

회의공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박건식 본부장, 보고 내용이 공개 가능한 것입니까?

○ 박건식 MBC 기획본부장

- 예.

○ 의장

- 그러면 이 안건은 공개한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본부장 보고해 주십시오.

○ 박건식 MBC 기획본부장

- 보고드릴 이사회 결의사항은 4건 있었습니다. '24년에 3건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 1건 해서 모두 4건입니다. 그중 첫 번째 2025년 문화방송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편성(안)은 지난해 23일 날 사장님께서 보고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4년 12월 기본성과인센티브 지급입니다. 노사합의에 따라 2007년부터 성과인센티브로 해서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일반직 및 촉탁직 그다음에 전문직, 계약직 대체로 100%이고, 조금의 편차가 있습니다. 지급인원은 1,610명이고, 액수는 대략 58억 4,000만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연말에 지급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지난해 '24년도 본사 기부금 집행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희망2025나눔캠페인'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에 5,800만원을 기부했고, 임직원 급여우수리 모금에 대한 매칭그랜트 기부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장학사업에 3,9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회사는 매칭그랜트로 2,0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나 혼자 산다> 달력 판매 수익 기부인데 <나 혼자 산다> 달력을 판매한 수익을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했습니다. 930만원 정도입니다. 예능프로그램 <놀면 뭐하니?> 부가사업 수익금, 이것이 큼니다. <놀면 뭐하니?> 부가사업 음원 수익금 등이 있는데 수익금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기부합니다. 대략 4억 7,000만원인데 주로 노래 들입니다. 유산슬부터 해서 SG워너비, 지난해 <놀면 뭐하니?>에서 가요경연이 있었습니다. 남자팀, 여자팀 해서 SG워너비 노래를 남자그룹과 여자그룹이 나눠서 경연을 했고, 그 음원수익이 총 4억 7,000만원에 달합니다. 기부금 내역처를 보면 당시 올림픽 끝나고 육상연맹의 꿈나무선수단, 양궁 국가대표들이 출연했는데 양궁선수 6명이 각자 희망하는 학교를 지목해서 화살을 쏘고 나서 각자의 고향이나 연고가 있는 곳을 지명해서 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대한육상연맹 꿈나무선수단에 700만원, 우상혁 선수가 기부를 희망한 곳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100만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음은 안나의집인데 성남에 있습니다. 이탈리아 신부님께서 운영하시는 곳인데 노숙자 또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 무료급식을 하는 곳입니다. 김하중 신부님이 주로 하고 계셨습니다. 밀알복지재단 5,000만원, 동방사회복지회는 미혼모 자녀들을 주로 케어하는 곳이고, 또 입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은 심장병부터 해서 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 중환자들이 많이 있고, 서울대 어린이병원도 비슷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함께하는사랑받은 난방 취약세대들이 있습니다. 연탄이라든지 또는 해외는 물이 없어서 고통 받는 곳이 많은데 물푸레 우물을 만들어 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달팽이 2,500만원, 한국소아암재단 2,500만원, 이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예능본부 위주로 해서 기부처를 정했습니다. 다음에는 보도본부 조직개편 및 사규개정 건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로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선거방송을 준비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안건입니다. 탄핵이 확정된다면 준비일정이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조직 형태로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요 내용은 선거방송기

획준비단과 그 밑에 준비팀을 신설하는 안건입니다. 준비단의 단장은 센터장(부국장급)이고, 하부조직은 팀장 1명으로 현재는 이렇게 두 조직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현행 직제조직은 7본부 21국 10센터 93팀에서 11센터 94팀이 되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SBS는 저희보다 한참 빠른 지난해 12월 20일에 선거기획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각 언론사들이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책상 위에 2부씩 놓아드렸는데 이것은 원래 MBC가 글로벌포럼을 준비하고 있는데 포럼에 대한 주요 열개들을 모았고, 이것도 1월 중 포럼사무국을 신설하면 조직개편 안건이 와서 그때 이사회에 상세보고를 드리고 필요하면 해당 담당이 와서 이 포럼에 대한 내용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의장

- 이것 관련해서 조금 더 개략적으로 설명하시지요.

○ 박건식 MBC 기획본부장

- 짧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공영방송인데 늘 보면 현안에 쫓겨서 매일 데일리뉴스라든지 또는 그때그때 일에 묶이다 보니까 공적 담론, 또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공영적인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을 거의 할 여력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05년, 2006년 정도에 여성포럼이라는 포럼을 해서 저희가 어젠다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오래 지속을 하지 못하고 사실은 중단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대충 포럼들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여러 가지 여건상 준비를 못 하고 있었는데 공영방송이 언제까지 이런 담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들에 대해서 발걸음을 같이 하거나 또는 약간 가이드 역할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가 현재 UN 기구와 같이 해서, 국내 언론사 중에서 처음으로 UN 기구와 같이 공동개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청년'이라는 주제를 잡고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 여러 가지 담론들을 모아서 공적가치를 실현해 보는 '청년과 평화' 이런 가치를 심으려고 합니다. 또 포럼이 통상적으로 하는 세미나 정도가 아니고 다양한 청년들의 조직을 묶는 것과 또 하나는 공연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래가 라이브 에이드(Live Aid), 1985년에 영국과 미국에서 열렸던 Live Aid 4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를 실기 위해서 저희가 국내 가수들과 해외 가수를 초청해서 공연도 같이 할 생각이고, 해외 쪽은 UN이 맡기로 했고, 국내 쪽은 저희가 담당해서 오늘도 사장님께서 하이브 관계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적담론의 가치를 한번 MBC가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윤능호 이사

- 이것은 일회성 행사입니까, 아니면 계속하는 것입니까?

○ 박건식 MBC 기획본부장

- 아닙니다. 계속할 생각입니다.

○ 의장

- 이것 자체는 10월에 하는 것이고 사전에 이것으로 가는 과정에 행사들이 계속 있을 예정이

지요?

○ 박건식 MBC 기획본부장

- 작은 세미나들, 행사들이 있습니다. 날짜도 지정됐는데 10월 중순쯤 연세대를 비롯해서 대학 시설을 빌려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장

- 질문 있으시면 하시지요.

○ 차기환 이사

-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3월 10일입니까?

○ 박건식 MBC 기획본부장

- 예, 3월 10일입니다.

○ 차기환 이사

- 그때는 선거방송전담반이 언제 설치됐습니까?

○ 박건식 MBC 기획본부장

-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차기환 이사

- 그때는 탄핵소추되고 난 후 지지율이 급진직하해서 최종적으로는 5% 이하까지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탄핵소추 이후에 지지율이 40%에서 오르내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는데 지금 공영방송 내부에서 탄핵이 인용될 것을 전제로 벌써 선거방송전담 조직을 꾸린다면,

○ 박건식 MBC 기획본부장

- 준비단입니다.

○ 차기환 이사

- 준비단이라는 것도 그렇지, 결국에는 이것이 탄핵될 것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차 때 국회 소추안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대미·대일 외교를 중시해서 중국, 러시아, 북한을 적대시 했다는 것을 탄핵사유로 삼았다가 철회했는데 철회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요즘 미국에서 나온 Voice of America나 또는 미국 의회 조사보고서를 보면 그 문제를 계속 지적하는데 공영방송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탄핵 심판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방송전담 조직을 설치하겠다는, 이렇게 하면 이것이 대외적으로 MBC의 모든 보도에 대한 공정성을 심각하게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것이 2017년에 그때는 제가 공영방송 이사를 하지 않았지만 그때도

아마 결정이 나자마자 그렇게 해도 60일이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조직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는 늘 해왔던 조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는 것이, 이제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60일이 걸릴지, 90일이 걸릴지 앞으로 탄핵 재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치 못한 처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당부를 드리면 요즘 어떻게 되는 것이 탄핵 찬반에 관한 시민들의 시위나 그들이 이슈로 삼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공영방송은 주로 보도를 하지 않는데 폭스뉴스, CNN, NBC, 또 영국 가디안 이런 데는 왜 시민들이 데모를 하고, 특히 과거와 달리 2030세대가 많이 나오는 것을 현장취재해서 외신을 보고 압니다. 우리나라에 방송사가 몇 개 있는데 우리가 국내뉴스를 외신을 통해 봐야 합니까? 그런 방송사의 태도들이 과연 장기적으로 어떻게 비춰질까? 미국 이번 대선의 큰 특징이 주류매체 영향력의 현격한 쇠퇴를 보여주고, 개인들이 SNS X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보를 전파하면서 방송국의 영향력을 극도로 누르는 것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왜 국민들이 외신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까? 더군다나 YTN 같은 경우 탄핵 반대집회 사진을 찍어서 '탄핵 찬성집회'라고 올렸다가 망신을 사기도 하고, 그것은 앞으로 방송사가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보도를 해주면 좋겠다, 특히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처럼 여권이 두 동강이 나서 지지율이 5%, 4% 돼서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마가 되지만, 이것이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40%로 계속 유지하면서 갈지, 내려가면서 갈지, 올라가면서 갈지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공정치 못한 보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크게 심판을 받으면 그것이 회사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회사 구성원 내부에도 임원들과, 여러분들의 성향은 제가 압니다. 국회도 "탄핵 재판과 관련해서는 내란죄 철회하겠다. 그것을 헌법적으로 구성하겠다" 온갖 이야기를 해대는데 앵커가 뉴스 끝나고 난 후 완전히 자기가 사법, 헌법의 무죄원칙 다 무시하고 단정해서 아무리 직무집행이 정지됐다고 하지만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 수괴"라고 공공연히 멘트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을 임원진들이 방치합니까?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렇게 기세등등한 것이 평생 가는 것도 아니고 방송사가 공영방송사로서 신뢰를 얻어가면서 존속 발전하려면 위 상사들이 브레이크를 밟아주셔야지요. 아무리 젊은 직원들이 혈기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어른들이나 경험 많은 선배들이 적절한 선도는 지키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심하고, 국내 뉴스를 외신을 통해 알아야 한다는 것도 너무 지나치고, 오죽하면 일론 머스크(Elon Musk)도 X에 올렸더라고요. 일론 머스크도 X에 올리고, 그 밑에는 고든 창(Gordon Guthrie Chang)이나 타로 오(Taro O)와 같이 미국의 우익성향의 저널리스트들이 상세하게 설명하고, 국내 젊은 청년들은 그것을 돌리면서 뉴스를 보고, 아니 이것이 무슨 일이고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 ○ 윤능호 이사

- 차 이사님 말씀 제가 듣기로는 크게 2가지인데 후자, 이를테면 작금의 MBC 보도와 관련해서는 저도 드릴 말씀이 많은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회의가 더 이상하게,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들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것은 생략하고, 전에 말씀하신 선거방송 기획단 신설에 관해서,

○ 의장

- 선거방송기획단이 아닙니다.

○ 윤능호 이사

- 준비단,

○ 의장

- 선거방송기획준비단입니다. 과거에도 보면 총선이나 대선 할 때 훨씬 6개월 이전에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준비단입니다.

○ 윤능호 이사

- 이것이 보통은 8개월 정도 전에 스타트하는데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1년 전부터 대충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을 보낼까? 이번에는 타사에 비해서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까? 미리부터 다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단 현재에서 빠르면 2월 안에 이것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선거방송, 특히 대선방송 같은 경우 각 방송사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그때마다 방송사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방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차원으로 삼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인데 마침 SBS가 12월 20일경에 벌써 선거방송기획준비단을 신설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와서 지금 그것을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준다거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준비를 하셔서, 탄핵이 인용될 때를 준비해 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CG작업, 요즘 워낙에 컴퓨터그래픽이나 각종 기술들이 굉장히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해도 굉장히 빠듯한 시간일 것 같은데, 이번에는 최근 MBC가 여러 가지로 영향력이나 신뢰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이런 기세를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강화해서 준비단 인원을 전보다 더 강화해서 잘 준비하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병철 이사

- 지금 탄핵이 인용될 것을 대비를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그때는,

○ 의장

- 그때는 없어지는 것이지요.

○ 김병철 이사

- 맞습니다. 이것이 확실하지 않은 것이니까 센터장이 부국장급이고, 너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비야 나쁠 것이 없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확정되지도 않은 것인데 이렇게 너무 강하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쭙보면 포럼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 박건식 MBC 기획본부장

- 예산은 전액 협찬을 유치할 생각입니다.

○ 김병철 이사

- 여기에 나온 연세대 있고, KT 여기가 돈을 내겠다는 것입니까?

○ 박건식 MBC 기획본부장

- 해외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 차기환 이사

- 어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지난 4년여 동안 부정선거 규명운동을 했던 분들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거기 말을 들어보니까, MBC는 모르겠습니다. KBS도 기자는 왔다고 하는데 보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됐던 투표지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을 다 시연했습니다. 예를 들어 좌우가 다르게 왜 나오는지, 또는 투표지 두세 장 윗부분만 붙어있는 것이 왜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이렇게 해서 나온다” 그런 것들을 다 직접 시연했다고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금 외신에서 나온 사진이 ‘Stop the Steal’입니다. 지난 4년 동안 트럼프가 “2020년 선거 도둑맞았다”고 주장하면서 외쳤던 구호가 그것인데, 그것을 젊은이들이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우리나라 4년 동안에 벌어졌던 선거소송에서 나왔던 이상한 투표지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것을 종이전문가, 인쇄전문가들과 4년 동안 연구해서 보는 앞에서 왜 그렇게 나오는지 설명했습니다. 최소한 공영방송사면 “그 문제가 음모론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어쨌든 비상계엄의 사유로 들고 있고, 그다음에 외신도 그렇게 땀고 젊은이들이 거기에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선관위에서 “형상기억복원종이로 인쇄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신권처럼 뻣뻣하게 퍼진다”고 하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데 왜 그런 뻣뻣한 투표지가 들어갔고, 그것은 어떤 절차에서 만들어지는지를 다 시연했으면 최소한 보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공영방송이고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이슈를 다루는 방송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취재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 의장

- 기획본부장에게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박건식 MBC 기획본부장

- 이사님, 그 의견은 보도본부에 전달드리겠습니다.

○ 차기환 이사

- 전달해 보십시오.

○ 박건식 MBC 기획본부장

- 다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통계청장을 지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2021년 한국정책학회에 선거의 조작, 여론 위협들 해서 전부 허위라는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통계청

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 차기환 이사

- 아니, 대한민국의 전문가들 중에서도, 그 사람만한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도 이것은 통계 학상 절대 자연 발생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이런 이야기 하면 취재하기 싫어하는 기자들은 “대법관들이 다 안 받아들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기자들도 있고, 그것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언론사는 어느 쪽으로 단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각자 주장하는 것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취재해서 보도해 줌으로써 국민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의무이지, 그것을 누가 공적기관에서 냈다고 해서 합리적인 토론 없이 명중하게끔 하는 것이 언론사의 가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 박건식 MBC 기획본부장

- 이사님 의견은 전달드리겠습니다.

○ 의장

- 차 이사님이 다른 이사님들 발언기회를 많이 끼어들어서 뺏어 가셔서...

○ 박건식 MBC 기획본부장

- 이사장님, 아까 차기환 이사님 말씀 주신 것 한 말씀만 보태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왔는데 아까 2017년 박근혜 탄핵 때, 그것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시에는 2015년 10월 12일에 선거방송기획단이 만들어져서 총선을 하고 대선까지 그냥 해체하지 않고 쪽 유지가 돼서 선거방송기획단 조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 차기환 이사

- 그때는 총선하고 그것이 쪽 유지가 됐다는 것입니까?

○ 박건식 MBC 기획본부장

- 예. 대선까지 갔고, 지금은 저희가 조직을 슬림화하다 보니까 지난해 선거방송기획단을 폐지 하고 다시 신설한 것이고, 아까 윤능호 이사님 말씀 올렸지만 SBS는 저희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시간적 여유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석환 이사

- 여전히 지구는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이 세계 인류 가운데 10% 됩니다. 80년대, 90년대 일본이 잘 나갈 때, Japanese NO.1이라고 할 때 도쿄의 경제학자는 “일본이 망해 가고 있다”고 논문을 썼습니다. 주장과 입증과 사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지요. 저는 지금 선거방송준비기획단 이야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초점을 좁혀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파스칼(Pascal)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파스칼은 통계학도 했으니까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신이 있는 경우에 믿는 경우와 믿지 않는 경우, 없는 경우에 믿는 경우와 믿지 않을 경우 4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신이 없는데 안 믿으면 손해가 없지만 있는데 안 믿는 것은 치명적인 문제다.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신을 믿는 것이 이익이 될 확률이 75%가 된다” 그래서 파스칼은 믿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선거방송기획준비단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에서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기각되면 투입비용이 매몰되는 부분은 사소한 부분이지만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인용될 경우 치러야 되는 비용은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하고, 그다음에 누가 책임자가 되는 것이 맞느냐, 혹은 국장급이 맡는 것이 맞느냐, 부장급이 맡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은 그것은 회사 안에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 안에서 누가 맡는 것이 최적인가는 우리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저는 SBS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고, 그리고 특히 선거방송이 갈수록 그래픽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영역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시간과 집중적인 비용 투입을 통한 그래픽 작업이야 결정되고 난 뒤에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지금부터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가정하더라도 준비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도 휴전선에서 전쟁이 날 확률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만에 하나 대비해서 철통같은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MBC가 지난번 총선에도 시청률 1위를 기록했듯이 이번에도 만약에 선거가 치러진다면 좋은 결과를 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병철 이사

- 김석환 이사님이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아까 부정선거 관련해서 보도 전혀 하지 않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산, 통계 부분은 견해가 대립될 수 있어도 최소한 물리적 증거, 투표용지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다 구겨서 넣지 않습니까? 안 구겨진 것이 있고,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소한 그런 부분은 지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절차적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파스칼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낮은 확률이라도 그것이 만약에 사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살펴서서...

○ 김석환 이사

- 선관위원회에서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 차기환 이사

- 이사님, 선관위는 제가 말씀...

○ 박건식 MBC 기획본부장

- 이사님, 그 부분은 잘 전달드리겠습니다.

○ 의장

- 우리가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 결의 내용 보고를 들었고, 또 차기환 이사

님이나 김병철 이사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달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것 가지고 계속 설왕설래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 김병철 이사

- 약간 보강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리하시지요.

○ 강중묵 이사

- 정리하시지요.

○ 김병철 이사

- 서로 다 이해했습니다.

○ 의장

- 더 질문이 없으시면 “MBC 이사회 결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 폐회 선언

○ 의장

- 다음 이사회는 1월 21일 오후 2시, 1월 22일 오후 3시에 제2차 정기이사회 및 제1차 임시이사회(MBC 2025년 상반기 업무보고)로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차 정기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50분 폐회】